

## 제3장 중세의 일본

2019년 05월 18일

김가연(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 박사수료)

### 63쪽

그림: 무사의 전투(헤이지 이야기 두루마리 모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남: 말에 타고있는 사람과 무기를 든 사람도 그려져 있네요.

여: 어떤 일어난 일이 그려져있는 것일까.

### 64쪽

중세의 일본(10세기~16세기)

남: 병렬해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었을까

여: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활약했던 것일까

<해보자>

① 이 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소학교에서 학습했던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업적도 어떠했는지 기억해보자.

② 2, 5, 8, 10이 어떤 인물인지 생각해보자. 또 이 네 명의 인물과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외에 알고 있는 사람을 열거해보자.

③ 이제부터 학습할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상상해보자.

- |  |                    |
|--|--------------------|
| 1. 무사                                      | 65쪽                |
| 2.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 6. 은각사             |
| 3. 은혜와 봉공(御恩と奉公), 잇쇼켄메이(一所懸命, いっすぐれるよけんめい) | 7. 서원조(書院造)        |
| 4. 금각사                                     | 8.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
| 5.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 義滿)                        | 9. 수묵화(水墨画)        |
|  | 10. 셋슈(雪舟)         |
|  | 11. 노 카쿠(能樂)       |
|  | 12. 료겐(狂言)         |

### 66쪽

<부가정보>

① 무사의 성장(좌: 코가와 사 기원 그림, 와카야마현 코가와 사 소장·교토국립박물관; 아래: 헤이지모노카다리 그림 두루마리,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무사가 지방에서 저택을 경호했고(왼쪽), 수도에서는 천황의 호위를 하거나 하고 있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❶ 무관은 천황이 거주하던 곳을 경비를 맡는 관리로서, 위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② 무사단: 무사단에서는 주인과 가족의 아이, 무가의 가신(郎党), 하인과의 관계에서는 주종 관계가 있고, 더욱이 대무사단의 주인을 중심으로 뭉쳐있었습니다.

<커피>

헤이안(平城)시대까지는 미나모토씨(源氏: 겐지)와 다이라씨(平氏: 헤이지), 후지와라씨(藤原) 등의 성씨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마쿠라(鎌倉)시대가 되어서, 살고 있던 토지와 영지의 이름을 성씨로 하는 무사가 나타나 성씨를 밝히는 사람이 증가했다.

### 제1절 무사의 대두(태두)와 가마쿠라막부(겸창막부)

#### 1. 무사의 성장-무사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일까?

##### 무사의 성장

10세기가 되자 도시와 지방에서 무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는 원래는 궁시나 말 등의 싸움의 기술에 뛰어났던 도시의 무사나 지방의 호족들이 조정이나 국부의 관리가 되고 천황의 주거지 및 관공서의 경호, 범죄의 단속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호족을 섬겨 저택(屋敷)을 경호하는 무사도 있었습니다. 도시의 무사가 지방의 관리직(役職)으로서 그대로 살거나, 지방의 무사가 도시에 올라와 조정을 섬기게끔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지방의 무사들은 호족을 주인으로 맞이해서 많은 가신을 복종시키며 무사단을 만드는 만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0세기 중반경, 북관동에서는 다이라 마사카도(平將門)가, 세토나이카이 지방(瀬戸内海地方)에서는 후지와라 스미토모(藤原純友)가, 조정의 정치에 불만을 느껴서 각각 주변의 무사간을 거느려 커다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사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 67쪽

한편 조정도 별도의 무사 간의 힘에 의해서 그 반란을 억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사의 힘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부가정보>

③ 중존사의 금색당(中尊寺金色堂, ちゅうそんじこんじきどう): 이와테현 중앙의 불상은 높이 62m. 오슈국(奥州, 陸奥国)의 후지와라(藤原)씨는 금이라든가 말 등의 산물과 북지방과의 교역으로 번영해서 정토(淨土)에 대한 동경에서 중존사에 금색당을 건립했습니다.

④ 황실·겐지씨·헤이씨의 계도

⑤장원(莊園)의 구조

② 농민이 영토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서 쌀과 베·비단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경작한 토지의 넓기에 의한 세금을 내는 양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 무사단(武士団)의 장원(莊園)

성장했던 무사단의 중심에서도 천황의 자손인 미나모토씨(源氏, 겐지)와 다이라씨(平氏, 헤이지)가 유력했습니다. 11세기 후반에는 동북지방의 무사끼리 분쟁을 계기로 한 커다란 전란(前九年合戦 後三年合戦<sup>1)</sup>)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전쟁을 진압했던 미나모토씨의 미나모토노 요시이에(源義家)가 동일본에 세력을 넓혔지만, 동북지방에서는 히라이즈미(平泉, 이와테현)를 거점으로 성장했던 오슈후지와라(奥州藤原)씨가 힘을 가졌습니다. 12세기 전반에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해적을 평정한 다이라씨(平氏)가 서일본에서 세력을 펼쳤습니다.

지방의 무사는 지위와 무력을 이용해 토지의 개발을 진행하고, 영지를 수도의 황족이나 귀

1) 필자 주: 이 전쟁은 원래 1051년부터 1061년까지 일어난 오슈 12년 전쟁(奥州十二年合戦)이라고 불린다.

족, 절과 신사에 기증했다. 이러한 장원에서는 무사가 연공을 농민으로부터 모아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를 보호함을 얻고, 힘을 증가시켰습니다. 한편 장원 이외의 국사가 지배하는 토지(공령)에서도 무사가 범죄적으로 취하거나 연공을 징수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1세기 후반에는 무사는 장원과 공영지에 건물을 세우고, 지방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 68쪽

<부가정보>

여자: 상황(上皇)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나.

① 힘을 기다리는 시라카와 상황(白河上皇): 카스 곤겐 시험기 그림(春日権現験記絵, かすがごんげんげんき), 도쿄부 궁내청 황실소장품박물관(三の丸尙藏館) 소장. 가스가 타이샤(春日大社)에 도착했던 장면입니다. 동행할 수 있던 호족과 경비의 무관이 병렬로 있고, 그 후에는 승려의 모습이 보입니다.

② 승병: 텐구 조시 두루마기 글씨본(天狗草子絵巻 模本)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상황이 절과 신사를 보호했기에 특히 큰 사원의 승려는 세력을 널리 가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들의 주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베로 감싸고서 무장을 해 신불의 위력을 내세우면서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요구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③ 호켄(保元)의 난과 헤이지(平治)의 난의 대립관계: 상황과 천황의 대립으로 호족과 미나모토씨(源氏), 다이라씨(平氏)의 내부에 대립이 일어나 큰 내란으로 발전했습니다.

## 2. 무사 정권의 성립- 무사는 어떻게 해서 정치의 실권을 잡았을까?

### 원정(院政)과 무사

겐씨(元氏)랑 헤이씨(平氏)라고 하는 무사의 성장과 장원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해져 천황과 강하게 결속하고 있었던 후지와라(藤原)씨와의 관계가 약해져 고산조 천황(後三條天皇)이 자리에 오르자, 장원 관리를 강하게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라카와 천황(白河天皇)은 자리에서 물러나 상황이 된 후, 섭정(攝政, せつしゅう)와 관백(關伯, かんぱく)의 힘을 억압하는 정치를 실시했다. 상황과 그 주거지는 원(院)이라고 칭했으며, 이 정치를 원정(院政)이라고 불립니다.

시라카와 상황(白河上皇)과 그 다음의 원정을 실시했던 토바 상황(鳥羽上皇)은 새로운 장원을 인정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장원이 상황에게 기증하게 했습니다. 또 상황은 사찰과 신사를 새롭게 건축한다든지 후하게 보호하거나 해서 사찰과 신사도 많은 장원을 가져 무장한 승(승병)을 거느리며 세력을 넓게 펼쳤었습니다.

상황은 섭정과 관백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무사도 가신으로 하는 등 자유롭게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토바상황의 사후, 천황과 상황의 대립과 정치의 실권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해지자, 교토에서 호켄(保元)의 난과 헤이지(平治)의 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호켄(保元)의 난에서는 고시라카와 천황(後白河天皇)에 우군이었던 다이라 키요모리(平清盛)와 미나모토 요시모토(源義朝)가 승리했습니다. 이어 헤이지(平治)의 난에서는 다이라 키요모리(平清盛)가 미나모토 요시모토(源義朝)를 격파할 세력을 펼쳤습니다.

## 69쪽

이 두 번의 내란이 지나자 조정 내의 대립이 무사끼리의 전쟁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무사가 정치하는 데에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가정보>

④ 헤이지의 영화(헤이케 이야기 平家物語): 로쿠하라(六波羅殿)①의 일족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예로 화족과 영웅②이라고 불렀던 가문의 높은 호족에게도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얼굴을 맞대는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입도상국(入道相国)③의 처남(小舅)④ 다이라 도키타다(平大納言時忠卿)은 “헤이가 집안이 아는 자는 모두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①③다이라 기요모리(平清盛) 본인

②섭관가에 다음가는 위치의 높은 호족

④배우자의 형제

⑤ 다이라 기요모리(平清盛)(1118-81) 교토부 로쿠하라(六波羅蜜) 절 소장 크기 76.7cm: 조정을 섬겼던 다이라 기요모리는 두 번의 내란에서 활약해 정치의 실권을 잡고, 태정대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관직에 취임했습니다.

⑥ 이스쿠시마 신사(厳島神社, 위)와 헤이케 납경<sup>2)</sup>: 일본과 송나라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었던 헤이씨는 항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쿠시마 신사를 여러번 참예했습니다. 산시에는 헤이씨가 일본의 번영을 기원하며 만든 화려한 경전(헤이케 납경)이 바쳐졌습니다.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

⑦ 겐페이(源平) 전란

⑧ 단노우라(壇ノ浦) 전투: 안토쿠 천황(安徳天皇) 기원 그림 야마구치현 아카마신궁 소장

<커피>

겐씨(源氏)의 백기와 헤이씨(平氏) 흥기가 운동회 등으로 나뉘는 흥백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겐페이(源平) 전란

다이라 기요모리(平清盛)는 고시라카와 천황(後白河天皇)의 원정을 도우러 무사로서 처음으로 태정대신이 되었습니다. 기요모리의 일본도 높은 지위를 얻고, 각지의 공영을 지배하는 것과 함께 많은 장원이 다이라 씨의 것으로 결집했습니다. 또 기요모리는 중국 송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취해 항해를 조정하고, 효고(고베시)의 항구를 정비했습니다. 기요모리는 딸을 천황의 비로 해서 더욱이 권력을 강화해 조정 정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처음으로 무사의 정권이 성립했습니다.

영화를 누렸던 다이라씨였지만, 조정의 정치를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호족과 사찰 신사가 반발해 지방의 무사 가운데에도 다이라씨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자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요모리가 고시라카와 천황(後白河天皇)의 원정을 중지시키자, 미나모토 씨(源氏)를 중심으로한 여러 지방의 무사가 다이라씨에 대항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2) のうきょう[納経] 납경: 공양이나 신심 따위를 위해 경을 베껴 절에 바침. 독경료를 내고 공양하는 일

움직임의 중심에는 이즈(시즈오카현)의 미나모토 요리모토(源賴朝)와 키소(나가노현)의 미나모토 요시나카(源義仲) 등이 있었습니다.

요리모토는 가마쿠라(鎌倉, 카나가와현)를 본거지로 하고, 무사를 결집해서 관동지방을 지배했으며, 아우인 미나모토 요시츠네(源義經) 등을 보내어 다이라씨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요시츠네는 다이라씨를 궁지에 몰아넣어 단노우라(壇ノ浦) 전투에서 멸망시켰습니다.

## 70쪽

<부가정보>

남자: 어떻게 가마쿠라는 막부를 열게 되었을까

① 막부 유적(1185~1225, 1226~1333년)

② 미나모토 요리모토(源賴朝)(1147~99)라고 전해지는 초상화: 교토부, 진사코 절(神護寺) 소장

- ❶ 가마쿠라막부의 성립시기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1185년이라는 것 외에도 1183년에 요리모토가 동일본의 지배권을 조정에게 인정을 받았던 시기라든가, 1192년에 요리모토가 정이대장군에 임명되었던 시기 등을 고려한 설명이 있습니다.
- ❷ 무사가 생활을 유지하는 영지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잇쇼켄메(一生懸命)라고 말하는 단어가 나타났다.

###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의 시작

헤이씨의 멸망 후, 요시츠네(源義經)가 요리토모(源賴朝)②와 대립하자, 요리토모(源賴朝)는 요시츠네(源義經)를 파악하는 것을 이유로 조정에 강력하게 다가가 1185년에 나라마다 수호를, 장원과 공영마다 지토(地頭)<sup>3)</sup>를 둔 것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리토모(원뢰조)는 본격적인 무사의 정권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를 열었습니다❶. 이후 가마쿠라①에 막부가 세워졌던 시대를 가마쿠라(鎌倉) 시대라고 합니다.

더욱이 요시츠네(源義經)가 히라이즈미(平泉)의 오슈후지와라(奥州藤原)씨의 아래에서 벗어나자, 요리토모(源賴朝)는 요시츠네(源義經)와 후지와라(藤原)씨도 공격해 멸망시켜, 전국을 지배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요리토모(源賴朝)는 1192년에 정이대장군에 임명되자 정치제도를 정비했습니다만, 그것은 간소한 것이었습니다. ③ 장군과 지배하의 무사는 주종관계로 맺어지고, 장군은 무사에 대해서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영지를 보호하며, 새로운 영지를 주곤 했습니다.(은혜 御恩❷)

한편,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무사는 고케닌(御家人)으로 칭하며, 교토의 천황이 사는 곳과 가마쿠라의 막부를 경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생명을 걸고 군역을 했습니다.(봉공奉公)

### 집권정치(執權政治, しっけんせいじ)

요리토모(源賴朝)의 사후, 제2대 장군 미나모토 요리이에(源賴家)와 고케닌과 다투지 않고, 고케닌끼리 다툼이 일어나, 이윽고 막부의 실권은 유력한 고케닌을 통합해 호조 도키마사(北條時政)④가 장악했습니다. 이로부터 호조(北條)씨는 장군의 힘을 약화시키고, 정치의 실권을

3) じとう[地頭]: 일본 중세의 장원(莊園)에서, 조세(租稅) 징수·군역(軍役)·수호(守護) 등을 맡았던 관리자.

장악한 집권이라고 불리는 지위를 취해 그 지위를 독점한 것처럼 되었습니다.(집권정치)

## 71쪽

조정의 세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던 고토바 상황(後鳥羽上皇)은 제3대 장군 미나모토 사네토모(源実朝)가 살해되었던 사건이 일어나자, 이 막부의 혼란의 중심에서 1221(조큐承久 3년), 막부를 무너뜨리려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막부는 대군을 보내어 이것을 격파하고(조큐承久의 난)⑥, 고토바 상황(後鳥羽上皇)을 오키(隱岐, 시마네현)로 유배해, 교토에 로쿠하라(六波羅殿)를 두어서 조정을 감시했습니다. 또 상황을 다랗던 호족과 서일본 무사의 영지를 취해 그 지토에는 동일본의 무사를 임명하고 막부의 지배를 견고히 했습니다.

집권정치는 집권을 중심으로 했던 유력한 고케닌의 의논으로 진행되어갔었지만, 집권의 호조 야스토키(北條泰時)는 효조(評定)라고 불리는 회의를 마련해 이것을 제도화했습니다. 또 야스토키(北條泰時)는 1232(조에이 貞永 원년)에, ‘고세이바이시킴오쿠(御成敗式目)(貞永式目)④’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효조(評貞)에서 판단의 기준을 결정했던 법률이며, 무사의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관습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율령과는 구별되어 독자의 법을 제정했던 것에서 무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세이바이시킴오쿠(御成敗式目)를 오래된 무사의 법률로 견본이 되었습니다.

### <부가정보>

- ③ 가마쿠라막부의 구조(しくみ) 가마쿠라의 사무라이도코로(侍所)이나 만도코로(政所)가 지방에는 쇼켄·지토를 세웠습니다. 구조도는 조슈의 난 후의 것입니다.
- ④ 미나모토(源)씨 장군가와 호조(北條)씨의 계도
- ⑤ 호조 마사코(北條政子, 1157-1225, 카나가와현 안요이(安養)원 소장) <무사의 아내> 가마쿠라 시대의 여성은 재산의 관리 등 가문의 중심을 도맡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케닌의 아내는 남편의 사후에는 지토의 직을 받고 남아있거나, 후계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사의 아내의 대표적인 존재가 호조 마사코(北條政子)이며, 남편인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사후는 어린 쇼군을 보좌하고, 후에 ‘비구니장군’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고토바 상황이 병사를 일으키자, 마사코는 요리토모의 은혜를 명하면서 고케닌들에게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 ⑥ 호조 마사코(北條政子)의 호소: 모두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요리토모 조정의 최후의 말입니다. 요리토모 공은 조정의 적을 쓰러뜨리고 막부를 열었던 분, 관직이라고 땅이라고 그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답하고 싶다는 뜻은 분명 알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를 소중하게하는 자는 교토로 향해 출진하고, 배반자를 밖으로 쳐내어 막부를 지켜주십시오(아즈마 카가미, 呑妻鏡)
- ⑦ 고세이바이시킴오쿠(御成敗式目): 하나, 여러 나라를 쇼켄의 직무는 요리토모 공의 시대에 정해진 것처럼, 교토 어소의 경비①와 모반과 살인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한한다. / 하나, 무사가 20년간 실제로 토지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인정한다. / 여성이 양자를 들이는 것은 율령에서는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요리토모 공의 시대 이래 현재

4) 일본 역사상 최초의 무가법전(武家法典)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고대의 율령이나 메이지(明治) 이후의 각종 법령(法令)이 기본적으로 외국의 법령을 모범으로 제정한 계승법이었던 것에 비해 시킴오쿠는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법령이라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일본 법의 역사상 획기적인 것이 되었다.

에 이르기까지 후계자가 없는 여성이 토지를 양자에서 양보해주는 사례는 무사의 관습으로서 헤아릴 수 없다<sup>5)</sup> ❶고케닌을 인솔해서 천황이 거주하는 곳을 지키는 것.

↑ 호조 야스토키(北條泰時)는 교토에 있는 아우에게 보냈던 편지 가운데에서 “이 무사의 규칙은 무사에 의해서 만든 것이어서 조정의 결정이나 율령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 72쪽

<부가정보>

여자: 호족의 무가저택(屋敷, やしき)라는 곳은 어떻게 다른걸까?

① 무사의 저택(一遍聖絵, いっぺんひじりえ: 카나가와현 쇼유조우코(清浄光)사 유교오(遊行寺)사 소장)

### ● 시험해보자

①의 그림 가운데부터 다음의 것을 찾고, 왜 필요한 것이었는가 생각해보자: 1. 궁과 화살, 방패, 2. 동물

② 시타쥬우분(下地中分)의 그림(호키국 도고쵸 下地中分絵図,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소장) 위의 그림에서는 왼쪽 반은 이 지토 분이며, 오른쪽 반은 영주의 것으로 되어 경계의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무예의 훈련(오부스마사부로 두루마리 男衾三郎絵詞,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 문화재): 무사는 평소부터 저택이나 그 주변에서 위와 같이 카사카게(笠懸)<sup>6)</sup>라든가 야부시메(流鏑馬)<sup>7)</sup>, 스모(相撲) 등의 무예의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 4. 무사와 민중의 생활-가마쿠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 지토의 지배

전국의 장원과 공령의 지토로 임명된 무사는 판자로 지은 간소한 저택에서<sup>①</sup>, 검소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그중에는 막부와 천황이 거주하는 곳의 경비 등에서 가마쿠라와 교토에서 살면서 희귀한 물건과 새로운 문화를 얻고 돌아와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는 무사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농민은 매년 조공을 장원과 영지의 영주에게 바치고 있었지만, 지토가 된 무사가 토지와 농민을 제멋대로<sup>8)</sup> 지배한 것이 많아져 지토와 영주와의 사이에는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막부에 의해 처리되어 토지의 절반이 지토에게 주어지고(下地中分)<sup>②</sup>, 지토가 일정 금액의 연공을 바치면 영주에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지토의 권리는 점차 영주와 같게 강력한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 무사의 생활

무사는 항상 말과 활 화살의 무예로 심신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궁마도(弓馬の道, きゅうばのみち)’와 ‘무사도’ 등으로 불리며, 명예를 중시하고 수치를 싫어하는 태도와 무사다운 마음가짐을 하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5) 数え切れない

6) 평안 말기에서 검창·실정 시대에 걸쳐 행해진 기사(騎射)의 하나(과녁 대신 샷갯을 걸어놓고 달리는 말 위에서 쏘)

7) 기사(騎射)의 하나: 말을 달리면서 우는 살을 쏘아 과녁을 맞히는 무예.

8) 勝手[かって]: 명사, ダナ 시먹음; 제멋대로 함.

무사의 가족은 일본의 작인 소료(惣領<sup>9)</sup>)가 중심인 아들이나 형제 등

### 73쪽

을 지키고, 단결했습니다. 영지는 분할상속으로 여자에게도 주어진 것이어서 여성의 지토도 많이 있었습니다.

### 민중의 움직임

가마쿠라 시대의 초기 영지는 무사와 승려가 중심이 되어 토지를 개발해서 농작물의 수확이 증가했습니다. 농작업에는 수와 말이 이용되고, 철제의 농기구가 더욱더 보급되고, 물과 나무를 태운 재가 비료로써 사용되어 같은 전답에서 쌀과 보리를 번갈아 경작하는 이모작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농업 마을에서는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라든가 의복의 염색을 진행하는 염색집 등의 수공업자가 정착해서 절과 신사의 문 앞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정기 시장이 열려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각지의 항구와 주 도로에도 여행객이 머물기 때문에 여관과 상인, 수공업자의 집이 되어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와 용수로 등의 공사는 점차 마을의 농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중심으로 민중의 결속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 <부가정보>

④ 정기 시장의 모습(一遍聖絵, いっぺんひじりえ: 카나가와현 쇼유쥬우코(清浄光)사 유교오(遊行寺)사 소장) 비젠(備前)의 후쿠오카(오카야마 현 세토우치시 오사후네마을)에서 열렸던 시장. 상선에는 쌀과 베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한 달에 세 번 열렸습니다.

⑤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수공업자(春日権現, かすがごんげん<sup>10</sup>) 도쿄도, 궁내청 황실소장품박물관(三の丸尙藏館) 소장.

### <역사 액세스> 지토에게 호소하는 농민들

기이(와카야마 현)에 있던 아케카와노쇼(阿氏河莊)는 교토의 자쿠라쿠 사(寂樂寺)의 영주를 한 장원에게 가마쿠라시대에 고케닌 유야사씨(湯淺氏)가 지토로서 들어왔습니다. 유야사씨는 지금까지 장원의 관습을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농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강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단결해 집단으로 마을을 떠나는 등으로서 저항했습니다. 오른쪽의 자료는 지토의 끔찍한 행동을 영주에게 호소하기 위해 농민들이 만든 가타가나 편각 소장입니다. (와카야마현, 고야산레 보고관 소장)

“아케카와노쇼께 마을의 백성들이 삼가 감히 올립니다. 하나. (영주에게 바칠)재목의 것입니다만, 지토가 상경하거나 혹은 근처의 노역을 한다고 해도 안부로서 지토의 소에서 혹사당하고 있어서 틈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재목을 산으로 운반하기 위해 보내면, 지토는 ‘도망간 백성의 밭에 보리를 베라’라면서 쫓아 되돌려 보냅니다.

### 74쪽

### <부가정보>

9) 주로 말아들이었으며,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10) 후지와라 일족이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 (14세기 초)에 제작한 수공예품 두루마리 그림.



남자: 지금의 불교와 다르게 보이네요

- ① 도다이지 남대문(나라시)와 금강력사상(입을 벌린 조각은 높이가 836.3cm, 입을 다문 조각은 842.3cm) 도다이지의 재건에는 호족과 무사뿐 아니라, 민중의 힘이 결집되어 새로운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 ② 헤이케 이야기: 기온 정사의 종소리는 제행무상,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울림이 있네. 사라쌍나무의 꽃 색깔은 아무리 기세가 왕성한 사람도 반드시 쇠퇴할 것이라는 도리를 나타내고 있네. 세상에 영광 잘되어있는 사람도 그 영광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봄밤의 꿈 보인다. 기세 왕성 심한 사람도 결국은 멸망 떠나고 마치 바람에 날려 먼지처럼.<sup>11)</sup>
- ③ 비파법사(琵琶法師, 職人尽歌合(しょくにんじんうたあわせ)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헤이케 이야기는 맹인의 비파법사가 각지를 돌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 5. 가마쿠라시대의 문화와 종교-가마쿠라시대의 문화와 종교는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던 것일까?

### 가마쿠라 문화

무사가 대두되는 가운데, 호족은 조정의 문화를 다시보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고토바 상황의 명령으로 편집된 신고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은 그 대표이며, 뛰어난 조정의 문화의 표현한다. 그에는 후지와라노 사다이에(藤原定家) 등의 호족, 무사부터 승이된 사이교(西行)<sup>12)</sup> 외에 사회의 허무함을 ‘호조키(方丈記)’에 기록했던 ‘카모노쇼메이(鴨長明)’ 등의 와카(和歌)가 들어있습니다.

겐페이 전쟁 가운데 에이씨가 불태운 도다이지는 호족과 무사만이 아닌 민중이 기부한 것이 보여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난다이문 등에는 송나라에서 새로운 건축양식이 수입되어 운케이(運慶)가 금강역사상 등의 힘찬 조각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동대사 재건의 영향을 받아서 가마쿠라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기부에 의해 대불이 제작되었습니다.

무사와 민중의 힘이 뻗어옴과 함께 친밀감 있는 힘찬 느낌을 주는 문화도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무사의 전쟁을 기록했던 군기록물인 ‘헤이케 이야기(平家物語)’는 알기 쉬운 문장으로 겐페이전쟁에서의 무사의 활약을 묘사하고, 비파법사에 의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승의 전기를 묘사했던 그림 두루마리도 많이 제작되어 또 겐코법사는 수필집인 ‘츠레즈레구사(從然草)’에서 생기가 도는 민중의 모습을 거론했습니다.

## 75쪽

### <부가정보>

- ④ 가마쿠라 시대의 새로운 불교
- ⑤ 잇벤의 오토리넨부츠(一遍の踊念仏, 잇벤히지리 그림,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잇벤은 염불을 지속하기 위해서 염불의 예를 돌리고, 위의 그림과 같은 춤을 적용시키는 등 궁리를 짜냈습니다. 이것은 교토에서 춤 염불의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위해 주변에 모여있었습니다.
- ⑥ 쿠마노 본궁대 신사 쿠마노 삼산(熊野三山)이라고 불리는 신사에서 신불습합의 영향을 받

11) [https://www.youtube.com/watch?v=5HGe\\_MI3akM](https://www.youtube.com/watch?v=5HGe_MI3akM)

12) 사이교(西行, 겐에이 원년(1118년) ~ 분지 6년 음력 2월 16일(1190 3월 31일))는 헤이안 시대의 승려, 와카 작가(歌人)이다. 속명은 사토 노리키요(佐藤義清)

아 모셔져있는 신이 아미타여래 등과 결부되어진 신앙이 되었습니다(와카야마현 타나베현)

### 가마쿠라 불교의 가르침

가마쿠라 시대에는 왕성하게 성장을 한 민중과 자신의 운명을 만들 수 있던 무사의 마음을 근거로써 새로운 불교가 퍼졌습니다. 이들은 알기 쉽고, 실행하기 쉬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겐페이 전쟁 전후에 정토신앙의 가르침에 엄격한 것을 지향했던 호넨(法然)은, 일십에 '나무 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과 염불을 읊으면서 누구라도 극락정토에서 태어나 변할 수 있다고 설파하며 정토종을 시작해서 그 가르침은 무사와 민중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호넨의 제자인 신란(親鸞)은 아미타여래의 구원을 믿는 마음을 강조했던 정토진종(淨土真宗)을 시골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또 잇벤(一遍)은 염불의 예를 나누어 가르침이 퍼져 시종(時宗)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니치렌(日蓮)은 법화경의 제목(南無妙法蓮華經)을 읊으면서 사람도 나라도 구조한다고 설파해 니치렌종(日蓮宗, 법화종)을 열었습니다. 요사이(榮西)와 도켄(道元)은 좌선으로 자신의 힘으로 깨달음을 시작한다고 하는 선종을 송나라로부터 전해 임제종(臨濟宗)과 조동종(曹洞宗)을 시작했습니다. 선종은 무사의 기풍과 잘 맞아, 막부는 적극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승려를 초빙해서 선종을 보급했습니다.

또 천태종(天台宗)과 진언종(真言宗) 등 그것까지 불교세력의 힘도 또 강해져 조정과 막부에 의해서 기도를 해서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신앙을 불교와 접복한다는 생각(신불습합)이 퍼져있는 중 새로운 신도도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 76쪽

#### 2절 동아시아 세계의 관계와 사회의 변동

<부가정보>

여자: 원은 어떤 전투방법을 하고 있었을까요?

① 몽골군과의 전쟁(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絵詞) 동경도 궁내청 황실소장품 박물관(三の丸尙藏館) 소장: 다른 나라로부터 내습에 키쿠치(菊池)씨 등의 고케닌 등은 용감하게 싸워 고생하면 서도 이를 물리쳤습니다.(분에이 전쟁 文永の役)

② 하카타 만(博多灣)에 복원되었던 방벽(후쿠오카시 니시구 높이 2.5m)

③ 쿠빌라이의 도서: 고려는 나의 동방 북국이다. 일본은 고려에 가까워 때때로 중국에 사신을 보낼 수 있지만, 나의 시대가 되어서부터는 한 명의 사신도 오지 않았다. 이후는 서로 방문해서 우호를 맺지 않겠는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잘 생각해보자.

④ 쿠빌라이 칸(좌: 1215-94)와 호조 토키무네(北條時宗 1251-84) 호조 토키무네는 카나가와현 엔간사 소장

#### 1. 몽골의 습래와 일본- 몽골의 습래는 어떤 것이어서,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 몽골제국의 확대

13세기 초에 몽골 고원에 유목생활을 하고 있던 몽골 민족으로부터 나타난 칭기즈칸은 분열 되어있는 세력을 통일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 나라는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걸쳐서 대제국(몽골제국)으로 형성되어 황제가 된 자손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대도(북경)으로

이주하고, 국호를 원이라고 정해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몽골제국은 각지의 타민족의 종교를 인정하고 육상뿐 아니라 해상의 교통로도 가져 널리 교류를 진정하면서, 유라시아부터 그리스도교를 초교한 선교사와 상인들도 원을 방문했습니다.

#### 두 번의 침입

쿠빌라이는 고려를 종속시키고 나아가 일본을 종속하려고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집권의 호조 토키무네(北條時宗)가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원은 고려 군세도 합친 공격을 했습니다. 1274(분에이 文永 11)년에는 대마도, 이키를 습격한 후에 규슈 북부의 하카타만 변(후쿠오카시)에 상륙해서 집단전법과 화약을 사용한 무기로 막부군을 고생시켰습니다만, 단기간으로 힘을 드러내는 목적이었던 것과 원과 고려와의 대립도 있으며 되돌아갔습니다. (분에이 전쟁 文永の役)

더욱이 원은 송(남송)나라를 멸망시키면서 1281(코안 4)년에 다시

#### 77쪽

일본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부가 해안에 건설한 석재 방벽과 고케닌의 활약으로 원군은 상륙하지 못하고 태풍우가 있어서 대패배를 해서 되돌아갔습니다. (코안의 전쟁 弘安の役). 이 두 차례의 침입(원군)의 후에도 원은 일본에 원정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원나라와 일본과의 민간의 무역은 이루어졌었고, 선동의 승려도 일본과 원나라 사이에서 오고갔습니다.

#### 가마쿠라막부의 멸망

막부의 지배를 지속하고 있던 고케닌은 영지의 분할상속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토지를 수족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막부는 고케닌이 수족했던 토지를 반환시키는 덕정령(德政令)이 발표해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침입으로 방어를 위해서 호조씨의 일복으로 권력이 집중되자, 막부를 향한 반감이 강해졌습니다.

한편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 전국에서 교통이 활발하게 되자, 물료가 집중했던 항구를 지배하고 있어 부유하게 된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킨키지방을 중심으로 장원 영주와 막부를 따르지 않고, 연공을 내지 않는 무사가 나타나 악당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다이코 천황은 정치의 실권을 조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막부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천황은 일정 오키(시마네현)로 유배되었습니다만,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등의 새롭게 성장했던 막부와 유력 고케닌인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 등을 아군으로 취해 1333년 막부를 멸망시켰습니다.

#### <부가정보>

##### 역사에 접속-유라시아 세계사의 탄생

일본은 헤이지 정권의 시대부터 급속하게 대륙과의 교류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철이 국내에 출현해 도지기(陶磁器)가 수입되고, 승려들의 행래도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세계의 교류가 활발하게 있어서 몽골제국이 내륙아시아로부터 올 수 있었습니다.

몽골제국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멀리 유럽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하나로 세계를 쌓기 시작한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쿠빌라이에게 임명된 이탈리아 사람인 마르코 폴로가 '세계의 기술(동방견문록)' 가운데에 일본을 '황금의 나라 Zipangu<sup>13)</sup>' 라고 해

서 유로파에게 소개하며, 유라시아라고 하는 큰 세계가 생겨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⑤ 몽골제국의 확대

⑥ 코안의 전쟁 弘安の役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絵詞) 동경도 궁내청 황실소장품 박물관(三の丸尙藏館) 소장. )

⑦ 에이닌(永仁)의 덕정령(德政令) 1297년: 영지의 전당과 매매는 고케닌의 생활이 어렵게 되게 하는 것이어서 이후에 금지했습니다. … 고케닌 이외의 무사와 서민이 고케닌으로부터 샀던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후의 연수에 관계해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이 되면 안된다. (↑ 영지를 사려고 하면 팔고자하는 고케닌을 구하기 위해서 막부는 덕정령(德政令)을 들어서 거저로 취해 되돌리곤 했습니다만, 그다지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❶ 고려와 중국 남부, 베트남에서 원나라에 반항한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

13) ジパング(Zipangu): Japan(ジャパン)의 어원이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일본호칭